

해고로 대응했다. 그러자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, 홍익대 본관에서 “청국장 끓이고, 고등어 구워” 가며 “이사장이 나올 때까지” 싸우겠다는 투지를 다지고 있다.

이 투쟁에 대한 연대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. 지난 11일에 열린 집중 집회에는 무려 1천여 명의 노동자·학생·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가해 뜨거운 단결을 과시했다.

이런 연대의 힘 덕분인지 투쟁을 지지하지 않겠다

려대·동국대·연세대·이화여대 등에서 미화·경비·시설 노동자들의 인간 선언과 투쟁, 승리가 이어졌다. 학생들의 연대와 사회적 연대는 이 투쟁들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이었다.

이 승리의 행진이 홍익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. 이 투쟁의 승리는 새벽부터 일하면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해 온 수많은 우리의 어머니, 아버지들의 승리가 될 것이고,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하고픈 우리 88만 원 세대의 승리가 될 것이다.

춧불 대학생 ‘고대녀’와 함께 가는 **홍익대 청소노동자 농성장 지지 방문**

날짜: 미정 (문의하시면 확정 후에 알려드려요)_</>

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,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...
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삶과 저항에 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.

새내기 맞이 포럼 - 미니 맑시즘2011

<http://www.marxism.or.kr/mini2011>



문의

010-4223-0647

**간접고용철폐 공동행동
춧불집회 함께 갑시다**

날짜: 1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 홍익대